

# 교육 및 직업훈련분야 개발사업 실시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오 기 윤 /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사회팀

## I. 머리말

교육·훈련분야는 우리나라 무상협력사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본 고에서는 동 분야에 대한 국제원조동향, 선진원조기관의 지원사례 및 개발사업의 실시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훈련분야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본문

### 1. 교육·훈련분야 정의

DAC 통계지침상 교육분야는 직업훈련 및 모든 수준의 일반교육 및 특정 교육목표 성취를 위한 건축을 포함하며(단, 특정분야 교육은 해당분야에 포함), 이는 다음 <표1>과 같이 분류된다.

<표1\_DAC 통계지침상 분류>

구 분	주 요 항 목
교육/수준 미분류 (Education/level unspecifi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Educ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li> <li>- 교육 시설 및 훈련 (Education facilities and training)</li> <li>- 교사 훈련(Teacher training)</li> <li>- 교육 연구(Educational research)</li> </ul>
기초교육 (Basic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li> <li>- 청소년과 성인의 기본 생활교육 (Basic life skills for youth and adults)</li> <li>-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li> </ul>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li> <li>-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li> </ul>
고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High education)</li> <li>- 고급기술, 관리자 교육 (Advanced technical and managerial training)</li> </ul>

본 고는 DAC 통계지침상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그간 KOICA 교육사회팀 및 재난복구지원본부에서 추진해 온 해당분야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을 대상으로 크게 직업훈련과 일반 기초교육으로 구분

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동 통계에 IT분야 교육·훈련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 2. 원조동향 및 선진원조기관 지원사례

### 1) 원조동향

UN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Goal 2 Target 3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고, 성 평등 달성 관련 목표 역시 2015년까지 전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근절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훈련분야는 원조의 주요 이슈분야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는 1990년 개최된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에서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EFA)’의 실현을 약속한 이래 현재까지 아동교육 확대, 무상의무교육 기회 제공, 문맹률 감소, 교육에서의 성평등 달성 및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주요 과제로 삼고 지원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하에 실질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전체 DAC 회원국 지원액의 8.7%, 2003년에는 7.7%가 교육·훈련분야에 지원되었다. 해당기간 중 이 분야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지원순위 및 각국의 지원비율은 아래 <표2>와 같으

며, 각 국별 주요 지원내용은 교육시설 개선 또는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교육정책 및 제도 개선, 문맹퇴치 및 기타 교육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선진 원조기관의 지원사례

이제부터 선진 원조기관들이 교육·훈련분야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몇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독일 GTZ

교육·훈련분야를 중점협력분야로 채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분야 및 기초교육분야에 대한 각각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업훈련분야〉

GTZ는 효율적 직업훈련 제도 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소득원 창출을 통한 빈곤감소(Poverty Reduction)라는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GTZ는 직업적 경쟁력이 기술적(Technical), 방법론적(Methodological), 사회적 경쟁력(Social competencies)뿐 아니라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기술까지 아우르는 것이라는 데 기본원칙을 두고,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론뿐 아니라 직업훈련 과정에도 초점을 맞춰 훈련프로그램의 고안·실행·검증에 있어 사회 및 기업과 최대한 밀접하게 협력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능력배양을 위한 정책조언 및 시범프로젝트도 진행한다.

GTZ는 각 수원국의 특수성과 개발사업 진행 과정

<표2\_공여국별 총 지원액 중 교육훈련분야 점유비율 순위>

순위	2002년		2003년	
	국가명	지원비율(%)	국가명	지원비율(%)
1	뉴질랜드	28.6	그리스	35.2
2	프랑스	19.5	포르투갈	34.3
3	아일랜드	19.4	오스트리아	27.3
4	포르투갈	19.3	뉴질랜드	23.8
5	오스트리아	15.0	프랑스	17.6

에 맞는 차별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며, 특히 시장조사를 통한 산업수요 파악 및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GTZ의 우간다 직업훈련 사업은 이러한 직업훈련 관련 원조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동 사업에서 GTZ는 우선 Uganda의 노동시장 수요조사 실시 후 Uganda Voc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UVQF) 개발을 지원하여, 이 UVQF에 의해 노동시장과 교육의 연관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직업윤곽 및 기준을 만들며, Uganda 교육부가 교육분야 전략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자문관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Gender equality, HIV/AIDS, 환경과 같은 Cross-sectoral 이슈를 접목시킨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직장 내 HIV/AIDS 교육이나 환경 친화적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거나 성평등 이슈 관련, 거의 모든 직업훈련 활동에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을 개발, 접목시키는 것 등은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MDGs 달성을 위한 하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기초교육분야〉

기초교육부문에 있어 GTZ는 'Education for All' 개념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사회적 불이익을 극복하고 정치·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MDGs 달성을 위해 학교건립과 같은 물리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성평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지속적 교육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수원국들이 EFA를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GTZ는 교육정책부터 교사훈련이나 학교 이외의 특정그룹을 위한 교과과정 관련 조언까지 지원한다. 또한 직업훈련의 경우에서와 같이 HIV/AIDS, 평화적 공존과 갈등해결과 같은 주요 이슈를 기초교과 과정에 특정방법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 □ 일본 JICA

JICA의 교육분야 원조 역시 Dakar Framework for Action의 Education for All 목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이 교사, 학습교재, 학습공간, 교육행정 및 정치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교 건립 위주의 사업형태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의 학교행정 참여, 학교중심 행정의 확산, 아동중심 학습방법의 보급, 교육행정 능력의 개발 등의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JICA는 수학교사들의 학습지도 기술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3~2006년간 온두라스에서 교수법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JICA가 나이지리아에 설립 추진 중인 School Management Committees(COGES)는 교장, 교사, 학부모 대표단, 종교 지도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구성원이 학교행정의 주체가 되게 하

는 것으로, 이를 통해 JICA는 지역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Ownership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 □ 미국 USAID

USAID는 교육을 초·중등교육 및 문맹자 교육과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및 성인층에 대한 기본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교육 부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USAID가 작성한 'Education Strategy: Improving Lives Through Learning'에 의하면 USAID가 내세우는 최우선 모토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및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방해하는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장벽을 없애 빈곤, 지역, 인종, 장애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 USAID는 수원국들이 적절한 공공자금을 유치하여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 우선 교육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수원국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평가자료를 만들게 하고 있다. 이는 수원국의 교육상황에 따라 사업지원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투입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었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USAID는 주요 과목을 테스트하는 등의 적절한 평가자료를 고안, 교육의 질을 측정함으로써 교육관련 사업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원국 정부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개혁 지원, 학교건립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다양한 자금확보 방안 등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 3. KOICA 지원 현황

이제부터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KOICA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원실적

1991~2004년까지 KOICA 무상협력사업 중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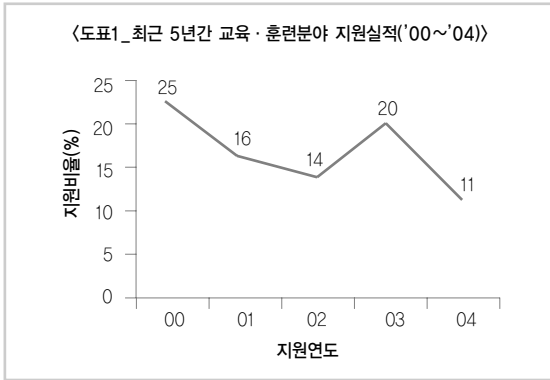
〈표3\_1991~2004년도 교육·훈련분야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총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협력사업 총액(A)	819	23	29	30	38	49	54	55	38	38	45	54	62	124	178
교육훈련 총액(B)	123	1	1	3	5	7	8	9	7	8	11	8	8	25	20
점유(B/A)	15%	4%	4%	10%	14%	15%	15%	16%	19%	21%	25%	16%	14%	20%	11%
개발사업 총액(C)	225	0.8	1.9	5.7	9.7	13.2	13.3	17.6	13.6	13.1	16.4	12.4	15.9	36.4	54.8
교육훈련 분야개발 사업(D)	83	0.4	0.4	1.5	4.3	5.6	5.6	6.5	5.7	6.2	9	4.1	4.4	17.5	10.4
점유(D/C)	37%	54%	25%	27%	45%	43%	43%	37%	42%	48%	56%	34%	28%	48%	19%

※ 세부 내역은 첨부 자료 참고

육·훈련분야의 지원비율은 대략 15%를 점유한다. 특히, 최근 5년간 평균 19% 가량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협력사업비 총액의 11%에 해당하는 20,112천불을 지원한 바 있다.



실제로 2003년 기준으로 협력사업비 총액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는 DAC 회원국 중 동 분야 지원 상위권 국가인 핀란드(21%), 아일랜드(19.4%), 오스트리아(20%)와 비슷한 수준이다.

〈표4\_DAC 회원국의 교육·훈련분야 무상협력 지원실적〉

(2002년 기준)

국 가	배분비율(%)	국 가	배분비율(%)
미국	2.3	그리스	7.8
캐나다	12.3	아일랜드	19.4
호주	4	핀란드	10.8
오스트리아	15	스웨덴	6.2
덴마크	9	스위스	4.5
독일	15.1	노르웨이	11.3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직업훈련분야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 지원액의 52%를 프로젝트형 사업(총 16건/계속 6건, 신규 10건)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외에 물자지원 32.8%, 연수생초청 7.8%, 봉사단파견 7.2%, 전문가파견 0.2% 순으로 지원

〈표5\_2004년도 교육·훈련분야 사업유형별 지원실적〉

구 분	사업비(천불)	점유율(%)
총 사업비	20,112	100
프로젝트	10,459	52
개발조사	-	-
물자지원	6,593	32.8
연수생초청	1,564	7.8
전문가파견	45	0.2
봉사단파견	1,451	7.2

## 2) 프로젝트/개발조사사업 지원 현황

### 가. 세부 분야별 현황

1991~2004년간 세부분야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직업훈련분야가 40건(개발조사 1건 포함)으로 가장 많고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분야가 각 17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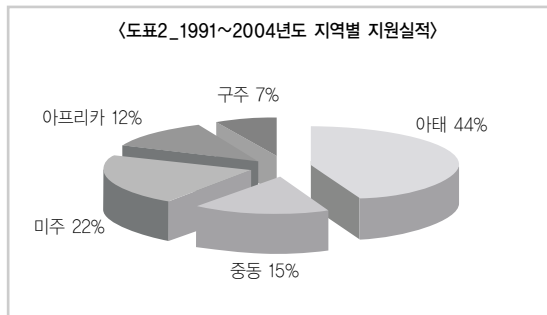
직업훈련분야의 경우, 개발조사사업 1건(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을 제외하면 모두 직업훈련원 개설 또는 기존 직업훈련원의 시설개선 지원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기초교육분야의 경우, 초·중등교육분야는 총 지원건수인 17건 중 초등학교 건립지원 사업이 12건으로 71%를 차지하고, 고등교육분야는 총 17건 중 대학교내 한국어과 신설 지원이 10건으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 나.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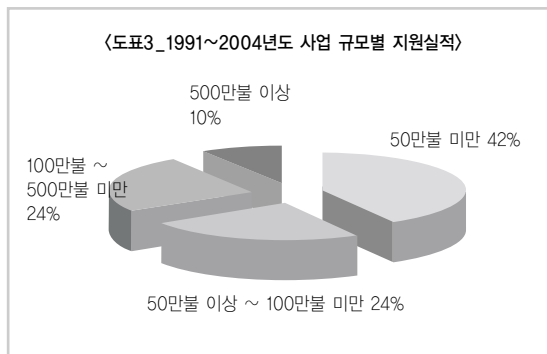
1991~2004년간 지역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아·태 33건(44%), 미주 16건(22%), 중동 11건(15%),

아프리카 9건(12%), 구주 5건(7%) 순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나 2003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간 재건사업 증가 및 주변 중동국가들에 대한 특별협력사업의 추진으로 동 분야에 있어서도 중동지역에 대한 지원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는 동 지역 지원이 54.6%로 최대 규모를 차지하였다.



#### 다. 규모별 현황

사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비 총액 100만불 미만 사업이 총 49건(66%)인 반면, 100만~500만불 사업이 18건(24%), 500만불 이상인 경우는 7건(10%)에 불과하여 총 지원액에 비해 단위사업별 규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 향후 사업추진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사회의 원조흐름 및 KOICA의 지원실적을 토대로 향후 교육·훈련분야의 사업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단 동 분야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며, 여타 분야의 협력 사업 추진 시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ODA 사업 규모는 2003년도 기준으로 366백만불이며, GNI 대비 0.06% 수준이다. 이는 OECD/DAC 회원국 평균 0.25%에 훨씬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KOICA는 이렇듯 영세한 원조규모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개발(HRD), IT 등 우리 개발경험 및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훈련분야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분야가 우리나라 무상협력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간 이룩한 성과를 대변하는 동시에 교육·훈련분야의 개선이 對개도국 무상협력사업의 질적 개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KOICA는 원조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분야별 조직편제를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교육사회팀을 신설했다. 이러한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성 제고 노력을 통해 아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1) 현지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개도국의 기술수준, 사회제도, 경제수준, 기초인프라 등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직업훈련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대상지역, 지원공과 및

장비의 선정을 위해 현지 산업기술 여건 및 인력수급 전망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CNC 등 고가의 신기술 장비를 지원하고서도 현지 관련 산업 미성숙, 장비보수유지 미흡 등으로 실습에 활용하지 못하거나 현지 산업체의 기술인력 수요에 부적합한 공과 선정으로 훈련생 선발 및 졸업생 취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2) 지속발전가능성 제고

교육·훈련분야의 협력사업은 개도국이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발(HRD)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직업훈련분야 지원목표가 개도국 기능인력 양성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장비지원 및 기술전수는 물론, 사업종료 후에도 재정적·기술적인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훈련원 운영계획 수립 및 정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 지원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효과유지를 위해 사후관리 또는 후속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지원기자재 관련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훈련교사의 보수교육, 전문가의 정기적인 지도 등은 지속발전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이 우리나라 직업훈련 프로젝트에 10~20년 이상 장기간 지원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우리나라는 과거 40여년간 경제사회 발전을 통해 교육훈련분야에서의 모범적인 시스템 및 풍부한 기

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여건이 다른 개도국의 경제사회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기술자문과 사업수행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개도국 교육·훈련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 전문기관에서는 실무경력과 어학능력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전문인력 Pool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전문교육 및 협력사업 참여의 기회를 집중 제공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ODA 증액에 따른 교육·훈련분야의 지원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원조사업에서 개발NGO의 참여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특히 교육훈련분야에 대한 NGO의 관심 및 참여가 많은 편이다. 아울러 협력단의 프로젝트 사업이 비교적 단기간 완료됨에 따라 종료사업의 사후관리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NGO를 통해 종료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분야에서 활동하는 NGO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협력사업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인식제고에는 물론 NGO의 전문화 및 협력사업의 성과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5)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분야 동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기초 교육 확대를 주요 원조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도국의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

나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6천만 명이 문맹상태에 있으며 취학 연령층에 속한 전 세계 어린이 1억 2천만 명이 교육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KOICA는 기존의 초등교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교육행정, 교육정책, 교사연수 등 개도국의 수요에 맞게 기초교육 지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 원조기관들처럼 MDGs 달성의 큰 틀 속에서 KOICA의 교육훈련사업에 성평등(Gender equality), HIV/AIDS, 환경 등의 국제적 이슈를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세부 사업추진 방안

교육·훈련분야는 크게 아래의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추진되어 왔다.

첫째, 개도국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술교육 및 경제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지속발전가능성 기반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둘째, 개도국의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무상협력사업의 인도주의 측면을 고려하고, UN의 MDGs 달성을 위한 국제적 원조 추세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부터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기초교육분야의 세부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직업훈련

#### 가. 추진전략

##### □ 중점 지원대상국 설정

직업훈련지원사업이 수원국의 산업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이 지원시설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직업훈련원이 배출한 기능인력이 인근 산업체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훈련지원사업은 일정수준의 산업인프라와 훈련시스템이 구축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급적 대도시 또는 산업단지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별 전략 수립 및 충실한 사전 현지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 사업효과의 지속성 유지 방안 모색

직업훈련원 지원에 대한 지속발전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적정인력 배치, 훈련재정확보, 학사운영, 교재개발 등의 훈련원 운영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산학연계, 졸업생취업지도 등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지원계획단계부터 훈련원 운영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아울러 물자지원,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여타의 협력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 지원내용 및 형태 다양화

그간 직업훈련원 건축 또는 시설개선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내용을 발굴하고,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이외 여타 KOICA 사업과의 연계성 있는 추진으로 지원효과를 제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파견사업과 연계하여 파견 전문가



를 활용함으로써 사업 발굴 또는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중점 지원공과 선정

자동차정비, 전기/전자, 컴퓨터, 섬유분야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신기술 및 개발경험을 전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원국 산업수요에도 부합하는 세부 분야를 선정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 나. 사업수행 형태

##### □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직업훈련원(자격확인검정센터, 기능대 등 포함) 건립 또는 시설 개·보수
  - 개도국의 기술인력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
  - 건축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단위사업 규모를 500만불 규모로 확대
  - 기 지원된 훈련원을 포함하여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 EDCF 지원과의 연계 가능

##### □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관련

- 직업훈련 정책수립 및 제도 구축 또는 개선 지원
  - 선진국에서 많이 수행하는 사업유형
  - 우리나라의 축적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지원 가능
  - 프로젝트사업, EDCF 등 후속사업 발굴에 기여

• 관련분야 행정인력 및 교직원 능력 배양 등

- 직업훈련분야 행정, 제도, 정책, 교수기법 등에 대한 기술 전수

#### 2) 기초교육분야

##### 가. 추진전략

##### □ 교육여건이 열악한 국가 위주로 지원규모 확대

기초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제분쟁, 재난, 빈곤 등으로 인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아프리카 국가나 개도국의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초교육은 모든 개도국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며, 협력사업 수행 측면에서도 비교적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확대는 국제적인 원조추세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 □ 새로운 사업내용 발굴 노력

그간 기초교육에 대한 지원은 초등교육 시설확충 사업 위주로 수행되었다. 이는 협력사업 중 기초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도 있으나 시설확충 이외에 적정 사업수단을 개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 초등교육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유관기관들이 개도국의 정책자문, 제도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동노력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최근 교육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 기관들이 개도국 교육분야 지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관심과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나. 사업수행 형태

##### □ 교육 기회 확대 및 여건 개선

- 초·중등학교 건립 또는 시설(기숙사 등 부대시설 포함) 개선
  - 개도국의 기초교육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 총 사업비 대비 교육·훈련 사업비중 증대 및 단위사업 규모의 확대 필요
- 빈곤층 여성 또는 아동교육센터 건립(문맹퇴치, 기초기술교육)
  - 빈곤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추진도 검토
- 도서관 등 교육시설기반 구축 지원
  - 시설지원의 다양화 도모

##### □ 관련 정책, 제도 등 개선

- 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 구축 또는 개선 지원
  - 국내 유관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인력 활용
  - 기초교육 지원형태의 다양화
- 교육분야 행정인력 및 교직원 능력 배양 등
  - 전문가파견 및 초청연수 형식으로 추진

##### □ 기타

- 지역주민 교육문화센터 지원
  - 초등학교 시설을 기초기술교육 제공, 주민회의 및 문화활동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 Ⅲ.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훈련분야는 국제적 원조추세에 있어 주요 이슈 분야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무상협력에 있어서도 중점 지원분야로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개발(HRD)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꾸준히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무상협력사업 예산 확대에 발맞춰 각 단위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원조흐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새로운 사업추진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분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축적한 유관기관이 협력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수립될 국별 지원전략의 틀 속에서 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사업내용 및 형태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 또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1) 참고로 최근 개발사업부에서는 KOICA 주요 지원분야별 개발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사업수요 발굴 및 사업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교육·훈련분야 협력사업 지원실적 총괄(1991~2004)〉

(단위: 천불)

연도	총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협력사업 총액(A)	819,005	22,840	29,386	30,448	38,295	49,228	53,741	55,473	38,442	37,930	45,353	54,010	62,070	124,089	177,700	
교육훈련 총액(B)	123,021	976	1,165	2,953	5,465	7,239	8,024	8,761	7,251	7,842	11,379	8,475	8,485	24,894	20,112	
점유(%) (B/A)	15	4	4	10	14	15	15	16	19	21	25	16	14	20	11	
사 업 구 분	프로젝트	82,389	449	476	1,562	4,342	5,615	5,513	6,542	5,770	6,295	9,183	4,168	4,499	17,516	10,459
	개발조사	178	-	-	-	-	-	168	-	-	-	10	-	-	-	-
	기자재 공여	12,272	-	-	326	50	301	411	360	166	305	248	78	286	3,148	6,593
	연수생 초청	12,567	365	310	630	557	557	665	559	361	572	1,067	2,288	1,355	1,717	1,564
	전문가 파견	2,941	15	-	7	47	72	33	128	49	40	63	1,019	804	619	45
	봉사단 파견	9,972	148	379	429	469	636	1,079	906	466	399	539	661	1,202	1,235	1,424
	봉사요원 파견	2,706	-	-	-	-	58	156	264	440	231	270	262	338	660	27
	비상지원	-	-	-	-	-	-	-	-	-	-	-	-	-	-	-
개발사업 총액(C)	224,759	830	1,928	5,719	9,654	13,178	13,306	17,573	13,636	13,116	16,387	12,422	15,849	36,376	54,785	
교육훈련 개발사업(D)	82,567	449	476	1,562	4,342	5,615	5,681	6,542	5,770	6,295	9,193	4,168	4,499	17,516	10,459	
점유(%) (D/C)	37	54	25	27	45	43	43	37	42	48	56	34	28	48	19	

## 참고자료

〈교육·훈련분야 프로젝트/개발조사사업 내역(1991~2004)〉

(단위: 천불)

구분	지역	국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구분	지역	국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프로젝트	아태	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	02~05	2,000	프로젝트	미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	03~04	1,200
			초등학교 건립	03	100			파라과이	기술전문학교 지원	96	200
		몽골	국립원거리 교육센터 건립	98~00	340			온두라스	기술훈련원 건립	97~99	1,000
			한-몽 기술대학 지원	00~01	700			페루	식품기술훈련원 건립	98~00	1,000
		미얀마	라소대학 강당시설 개선	95~96	500			볼리비아	기술교육훈련원 지원	00~02	750
		방글라데시	다카대 한국어센터 지원	97	100			코스타리카	기술훈련원 지원	00	230
		베트남	빈딩성 초등학교 건축 지원	94~96	250				우에따르노르페 직업훈련원 지원	04~05	330
			하노이, 퀴논직업훈련원 지원	94~98	2,500			니카라과	벽지농촌 교원주택 건립	97~99	1,000
			넌안성 초등학교 건축	95~96	250				직업훈련센터 강화	02~03	383
			산업기술학교 지원	97~01	5,000				국립농업기계화훈련원 현대화	04~05	338
			충부지역 초등학교 건립	01~02	2,000		아프리카	케냐	기술훈련소 지원	91	600
		스리랑카	개방대 한국어교육지원	92~93	120				나이로비공대 현대화	95~96	500
			아동복지원 지원	93	120			튀니지	Amira 직업훈련원 지원	94~95	400
			한-스 직업훈련원 지원	94~96	2,000				국립직업훈련센터 지원	97~99	1,000
			개방대 실습실 지원	96~98	1,000			남아공	기능검정센터 지원	97~01	3,000
			자프나기능대학 개선사업	04~07	2,330			모로코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개선	04~05	500
		인도네시아	한-인니 직업훈련원 지원	91~94	5,200			알제리	직업훈련원 지원	04~05	1,000
			이동식 직업훈련원 지원	94~95	228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 지원	04~05	800
		중국	강소성 양주직업학교 지원	95	200		중동	수단	한-수 직업훈련원 지원	92~98	4,790
			금평현 민족직업학교 지원	95	340			이집트	Shorabia 직업훈련원 지원	93~95	600
			도문 제3소학교 지원	95	450				자동차정비센터 지원	96~99	1,500
			위해 한국어센터 지원	96	190				알렉산드리아 자동차정비 직업훈련원 지원	04~05	1,800
			흑룡강성 조선족사범학교 지원	96~97	500			팔레스타인	PA 초등학교 증축	97~98	200
			상해 한국어센터 지원	96~98	900				교육시스템 개선	04~05	2,300
			한-중 직업훈련원 지원	97~00	10,000			아프가니스탄	공무원훈련원 건립	03~04	6,000
		태국	찬드라카셈대 한국어센터 건립	95	100				한-아프간 직업훈련원 건립	03~05	9,000
			출라롱콘대 한국어센터 건립	95	100				한-아프간 직훈련기숙사 건립	04~05	2,027
			벽지학생 복지향상 지원	95~96	350				파르완주 학교 건립	04~05	800
			송클라대 한국어센터 건립	96	100			이라크	한-이라크 직업훈련원 건립	03~06	9,000
			치앙마이 한국어센터 건립	96	100		구주 및 CIS	러시아	사할린 한인학교 지원	95	200
	파키스탄		초등학교 건축 지원	94~96	800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대 한국어 강좌개설 지원	95~97	150
	필리핀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	03~05	5,000			우크라이나	Klovsky Lyceum학교 증축 지원	97~98	500
	PNG		카리타스여자기술학교 지원	97~98	250			불가리아	소피아대 한국어과 지원	01	300
	미주	자메이카	기술훈련소 지원	91~92	257			루마니아	Cluj-Napoca기술대 지원	03	220
		도미니카	1차 초등학교 건립	92~93	585	개발조사	아프리카	튀니지	직업훈련원 건립 타당성 조사	96~97	168
		과테말라	제1 청소년복지원 지원	93~95	700						
			제2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	97~99	500						
			제3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	97~99	500						